

## ■ 광주시의회 시정 질문

광주시의회는 14일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KTX 개통에 따른 정치적 문제와,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협력, 비정규직 대책 등 광주시정 주요 현안 분야에 대해 질의와 함께 대안 마련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시·도 군공항 이전 협력 필요”**

## 송경종 시의원



에 따라 전남도와 공항이 전 대화가 단절됐다”고 지적하고 “오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 있어서도 전남의 협력이 절실했지만 앞으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함께할 사안들에 대

해 시·도가 상생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보다는 시·도 협력을 통한 무안공항 활성화에 힘을 모았고, UEA 회의장, 전남 지역 단체장 등이 참여했다”며 “지역 현안을 협의해 상생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혜명했다.

송 의원은 “광주시가 군 공항만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존치하려함

**“KTX 광주역에도 진입해야”**

## 진선기 시의원



다”며 “KTX의 패속성을 감안해 KTX는 광주역으로 가장 단 시간에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또 “호남고속도로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용봉IC의 진입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인근 도로를 8차로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까지 하루 평균 차량통행량이 10만대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6차로 확

가는 시도를 통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안내심이 이미 바닥이 났다. 여야 모두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송 의원은 “KTX정차역은 송정역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TX와 도시철도 2호선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도시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선기(민주·북구 1)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KTX가 광주역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광주역 기능이 크게 악화하고 광주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은 천문학적 수치에 달할 것이다.

**“용역·민간위탁 비정규직 대책을”**

## 강은미 시의원



용노동부 선정 전국 모범 사례로 뽑혔으나, 이는 직접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것일 뿐 용역과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지적했다.

강 의원은 “광주시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공단, 출연 기관까지 용역·민간위탁을 제대로 조사해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간

간접고용과 위탁 등에 대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직접고용 인력에 집중될 뿐 용역·민간위탁 등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걸들고 있다는 자제도 나왔다.

광주시의회 강은미(정의당·서구 4)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해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51명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

장기준인 하루 5만2000대를 2배 가까이 초과한 것은 물론 8차로 확장기준인 10만4000대에도 극복할 수준이라고”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통행량 증가치를 고려할 때 용봉IC~서광주IC 구간은 향후 5년 내 10만5000대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데다 용봉IC가 입체화될 경우 교통통행량은 더욱 급증할 것”이라며 “그러나 광주시는 2022년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 용봉IC~동립IC(4.6km) 구간만 8차로로 확장하고 나머지 구간은 6차선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주 혁신도시·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균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선암동 전원주택용지분양****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150평~420평(분할·합병 가능)  
현 토목공사 90% 진행 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 세금 납부 완료)
4. 각 필지별 6m로 접

찾아오는길

선운자구

영광 →

어등산 골프장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정쟁 중단·민생 우선 공동선언” 4자회동 하자**

〈응당 대표·원내대표〉

**새누리 최경환 제안에 민주 “진정성 못 믿어”**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쟁 중단 여야 공동선언을 제의했으나 민주당은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정쟁 중단 및 민생 우선 대국민 선언을 제안한다”면서 “양당 대표

와 원내대표 4자 회동을 통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안내심이 이미 바닥이 났다. 여야 모두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진영 논리와 당리당락 등 정치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삶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도 정쟁 중단과 민생 정치를 강조해온 점을 거론, “여야 지도부 간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각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양당 지도부가 손잡고 국민 앞에 함께 정쟁 중단을 약속하면 여야 모두 정쟁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기국회를 가장 진지하고 내실 있는 국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거부 입장 을 보였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병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비난한 여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아무리 여당이지만 정부를 견제하는 국정감사에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제안이 국감을 앞두고 다른 이슈로 국감 이슈와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양태한 술수가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민생은 국정감사장에서 논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이처럼 국정감사 첫날 정쟁 중단 제의를 한 것은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는 여당의 애를 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답이 성사되든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맹공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기 jkpark@kwangju.co.kr

**김한길 수염 깎고 장외투쟁→국감모드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덕수록했던 수염을 깎고 장외투쟁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체크무늬 셔츠도 벗고 정장 차림으로 국회에 등원했다. 김 대표의 새로운 모습은 원내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원쪽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 당시 모습. 오른쪽은 14일 최고위원회의 입장하는 모습.

**노벨경제학상 美 파마·핸슨·실러 공동수상**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시카고 대의 유진 파마(Eugene F. Fama·74)·라스 피터 핸슨(Lars Peter Hansen·61) 교수, 예일대의 로버트 실러(Robert J. Shiller·67) 교수 등 미국인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유진 파마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자산 가격의 경험적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들 3인을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은 있지만 향후 3~5년

정도 장기적 가격에 관해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놀랍고도 도순적 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선정 사유를 부연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신경민, 광주서 ‘국정원을 말한다’ 토크 콘서트****강기정 의원 공동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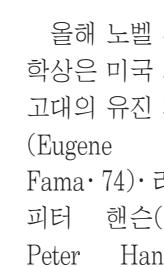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경민 최고위원은 16일 오후 5시 전남대학교 인문대 소강당에서 ‘국정원을 말한다’라는 주제의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신 최고위원과 강 의원은 콘서트를 통해 ▲국정원 사건을 국민이 알아야 하는 이유 ▲국정원 사건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국정원 사건의 과정과 국정원 개혁 방안 등을 청중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할 계획이다.

한편, 신경민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를 시작으로, 오는 23일 순천대에 이어 올 연말까지 전국을 돌며 국정원 사건과 국정원 국정조사, NLL 대화록 논란 등의 진상과 관련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시카고 대의 유진 파마(Eugene F. Fama·74)·라스 피터 핸슨(Lars Peter Hansen·61) 교수, 예일대의 로버트 실러(Robert J. Shiller·67) 교수 등 미국인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라스 피터 핸슨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자산 가격의 경험적 연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들 3인을 공동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주식과 채권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은 있지만 향후 3~5년

정도 장기적 가격에 관해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놀랍고도 도순적 으로 여겨질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선정 사유를 부연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영천 부동산****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금당공인중개사****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투자·감정가 이하**

- 총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만 오피스텔, 상가기별적합 9억6천
- 평평군 영업 절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4평 땅에는 소형APT나 다세대 적합 10억5천
- 월류·다세대적합지 토지 6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원 등 고구려길 건물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원·한의원·시우동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로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9억5천
- 조선대학교 앞 동명원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 등 건물 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 청년민원에 월 3500만원선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상황에 적합. 법인인 23억
- 대인동 소방서 부근대로변 상업지 694㎡(210) 건평158평 광주온행 본점부근 공시지가에 대도11억6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 가능. 투자에 적합 7억4천
- 매도. 신도시 지도읍 오피스텔, 증도에 슬로우시티와 웰도라도 가는 길. 비단가로 보이는 별장용 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로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 가능. 기록은 1억2900만원과 1억8500. 임대도 가능하며 조건은 조정함.
- 임대. 신창동 보건대학 부근 주택전시관 1층167㎡(50) 전세 5천에 월200선 임대. 분위기 있는 상당도 적합
- 임대·매매. 생활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의 기도생활주택 2층 건물 흙탕물 시설의 풀옵션 9평형 주택 임주는 11월 말경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해서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